

미래 문화애호가를 키우자

놀이공원 가듯 공연·전시장 찾아라

생어릴 때부터 공연·전시와 친구해요

광주지역은 순수 공연 불모지로 통한다. 공연장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 애호가 층이 빈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도 향유자가 없으면 무용지물. 애호가들이야말로 문화중심도시의 주춧돌이다. 우리가 미래의 문화 애호가들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민 90% “1년간 공연 한 번도 안봐” 어릴적 감동 평생...문화예술 안목도 키워

‘어릴 때 본 공연의 감동은 집으로 오는 길에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제 가슴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뮤지컬 ‘난타’ 제작자 송승환씨가 출연한 공연 광고는 어린 시절 문화 경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훌륭한 공연이나 전시를 본 감흥은 평생 지속되고, 특히 어린 시절의 감동은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문화를 어렵게 생각하고, 성인이 돼서도 공연장이나 전시회장에 가는 걸 특별한 일로 여긴다.

문화관광부의 ‘2006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97.7%는 1년동안 클래식 공연을 단 한차례도 관람한 적이 없었고, 미술 전시는 90.8%, 연극(뮤지컬 포함)은 89.7%가 관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역 문화회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9%에 불과했다.

공연이나 전시와 친숙해 지려면 많이 접하고 경험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전시장, 공연장 등에 자주 데리고 다니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마인드를 키워 주는 게 필요하다.

초등학교 4학년인 현승이(12·광주 살레시오초교)는 올초서울시립미술관의 ‘르네 마그리트전’에 다녀왔다. 유리컵 속에 구름이 담겨 있는 그림을 관람한 현승이는 집에 돌아온 후 스스로 도화지에 컵을 그리고, 솜으로 구름을 만들어 ‘작품’을 완성했고 이후 그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현승이는 광주문화관에서 무료 지킴 ‘지킴 앤 하이드’를 본 후 무

지컬 매력에도 푹 빠졌다. 삽입곡들을 지금도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현승이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에도 자주 가고 집에서 아빠·언니와 소박한 가족 음악회도 열었다.

엄마 김은영(45·광주시 북구 흥동)씨는 “어릴 때부터 수준 높은 공연·전시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쌓여 자연스럽게 문화에 젖어드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음악회나 전시회에 다녀오면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참 많이 행복해 한다”고 말했다.

‘스파이더맨’ 등을 상영하는 극장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공연장 등에서는 그런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요즘 들어 문화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 발걸음이 조금씩 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유명 단체들의 광주 공연도 진행돼 프로그램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아이들의 문화체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문화회관과 시청 홈페이지, 신문의 문화면을 꼼꼼히 살펴 적합한 공연과 전시회 정보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 교향악단·무용단·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체들의 공연은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 거리의 갤러리, 신세계 등 백화점 갤러리도 훌륭한 문화 교육의 현장이다.

음악가 김찬경(44)씨는 “아이와 자주 접하는 엄마가 공연이나 전시를 함께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



더위가 즐거운 아이들

30도를 넘나드는 ‘맹벌 더위’ 속에 광주 패밀리랜드 야외 수영장이 19일 문을 열었다. 수영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피해 물속으로 뛰어든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3.1도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나명주기자 mjna@

‘여수 엑스포’ 본격 득표전 시작됐다



BIE 총회 폐막...11월 회원국 투표까지 정부 총력전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된 제 141회 세계박람회 기구(BIE) 총회에서 2012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총회 이틀째인 19일 오전(한국시각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의 준비상황과 정부의 지원계획 등을 담은 프

레젠테이션을 통해 모두 3천만달러를 출연해 추진하는 ‘여수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및 해양과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과 유엔의 환경관련 기구들이 공동으로 조사·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여수 프로젝트’를 위해 1천만 달러를 출연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국제사

업에 2천만 달러를 배정할 방침임을 공식 발표했다.

한 총리는 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과제의 위기 해결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자는 ‘여수선언’의 채택도 제안했다.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은 박람회 준비상황-가야금 4중주단의 퍼포먼스-김재철 유치위원장의 연설-여수 소개 영상-강무현 해수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관련인사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후 카자흐스탄, 헝가리, 그리스, 몰타 대사와 개별 접촉을 가진데 이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우간다의 대사 또는 BIE 대표 등을 만찬에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 BIE총회에서 유치교섭 활동을 마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순방하며 유치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앞으론 발언 전 일일이 물어보겠다”

靑, 선관위에 불쾌감 표시...한 “검찰 고발” 압박

청와대가 지난 18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종립 위반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대통령의 모든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사전질의를 하는 등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정부관계 수석회의를 열고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

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호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으며, 모야모야 수백 건도 넘을 것”이라며 “이런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검찰고발 방침을 거듭 언급하며 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검찰고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 방침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 360-5000

신용의 상징 - 비특표 **유한양행** 광고심의필: 918-0600 www.yuhan.co.kr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비콤씨

THE KOREA'S Most Admired COMPANY

유한양행 200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세 Star 3위 (제약부문 1위)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 - 비콤씨

■ 비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산(051)462-4973 • 대구(053)752-05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3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니다. (02-380-1658 www.kfda.go.kr)